산업별 창업 동향

Ⅰ 법인창업지수 증감률(전년 동월 대비)

• 2019년 5월 서울 법인창업지수는 117.3로 전년 동월 대비 2.8% 소폭 증가

• 도소매(-6.4%), IT융합(-7.0%), 콘텐츠(-20.7%)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(-18.3%), 도심제조(-6.2%) 등 전반적인 감소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법인 창업 비중이 높은 금융(27.0%), 비즈니스서비스(12.7%), 그외기타(5.9%) 산업에서 전년 동월 보다 창업이 증가하며 서울시 전체 법인창업지수의 성장을 견인

Ⅰ 산업별 창업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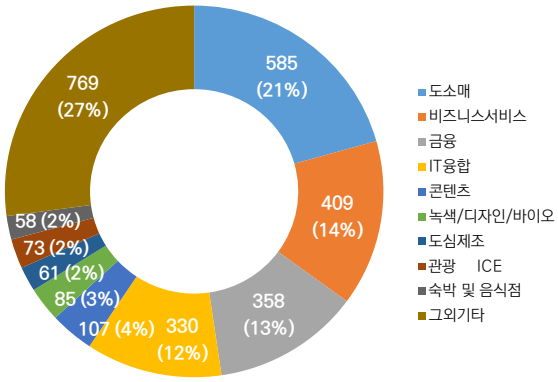
• 서울에서 창업한 법인 수는 2,835개로 이중 비영리법인은 108개(3.8%)

•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585개, 비즈니스서비스업 409개, 금융업 358개, IT융합 330개, 콘텐츠 107개,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 85개, 관광·MICE 73개, 도심제조업 61개, 숙박 및 음식점업 58개, 그외기타 산업 769개가 창업

- 그외기타 산업은 부동산업(32.1%), 제조업(19.2%), 건설업(16.5%) 등으로 구성

[그림 1] 2019년 5월 산업별 창업법인 수(비중)

단위: 창업 법인 수(비중 %)



• 산업별로 살펴보면 콘텐츠(-20.7%)와 녹색·디자인 및 패션·바이오메디컬(-18.3%) 산업이 전년 동월과 비교해 크게 줄었고, IT융합(-7.0%), 도소매(-6.4%), 도심제조(-6.2%), 관광·MICE(-2.7%) 등의 산업에서도 창업 감소

• 반면에 금융(27.05%), 비즈니스서비스(12.7%), 그외기타 산업(5.9%) 등에서 창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숙박 및 음식점(0.0%)업은 전년 동월대비 보합세 유지

[표 1] 2019년 5월 산업별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

